

【논문】

## 둔스 스코투스의 의지이론 연구 ( I )\*

— ‘이성적 능력(potentia rationalis)’으로서의 의지—

김 율

【주제 분류】 중세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이성적 능력, 의지, 비결정성, 자연, 지성

【요약문】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9권 2장에서 제시하는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의 구분은 스코투스가 의지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의 토대로 삼는 주요 전거이다. 『형이상학주해』에서 스코투스는 의지와 자연이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에 대한 후험적 고찰을 통해, 이성적 능력 즉 대립자에 관계하는 능력은 곧 의지이며, 비이성적 능력 즉 하나의 대상에 관계하는 능력은 곧 자연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스코투스는 의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얼마든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 즉 자기제어의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의지의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보았으며, 의지의 작용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우연성을 ‘과잉충족의 비결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지성이 아니라 의지가 본래적으로 이성적 능력이라는 스코투스의 이론은 스콜라철학적 능력심리학에서 제기되는 자유와 합리성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줄 뿐 아니라, 스코투스 윤리학의 기초이기도 한 소위 이중 성향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KRF-2005-075-A00033). 이와 더불어,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심한 지적과 조언을 주신 두 심사자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 I. 문제의 제기와 논문의 목적

인간이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자라는 것은 서양철학의 고전적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온 명제에 속한다. 한갓 감각적 능력만을 지닌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며 자유롭게 선택한다. 합리성(rationality)과 자유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자 또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중세 스콜라철학 역시 이러한 사고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스콜라철학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교의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희랍철학의 이론적 성찰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인간 행위의 합리성과 자유에 대한 치밀한 사변을 구성해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스콜라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특징은, 인간의 모든 작용과 행위를 영혼이 지니는 특수한 능력들의 기능으로 설명하는 소위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이다. 능력심리학은 영혼 안에 영혼 자체와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다수의 능력들이 있다는 암묵적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이 개별적 능력들을 심리적 작용의 직접적 원인으로 간주한다. 스콜라철학은 이러한 능력심리학의 방법에 따라, 인간 행위의 특질인 합리성과 자유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지성(intellectus)과 의지(voluntas)의 관계 분석을 통해 탐구한다.<sup>1)</sup>

1) 물론 소위 ‘능력심리학’이 스콜라철학만을 특징짓는 방법론적 사고는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정의(知情意)와 같은 부분들로 나뉘져 있다는 사고방식은 볼프(Christian Wolff)와 같은 독일강단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이러한 사고방식 전반에 대한 현대의 전형적인 비판을 우리는 예컨대 길버트 라일의 『마음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능력심리학이 특히 스콜라철학의 방법론적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영혼과 그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구별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 식의 사

합리성과 자유가 지성과 의지라는 능력들의 관계 분석을 통해 탐구 될 때, 우리는 합리성과 자유 사이에서 모종의 해석적 긴장을 감지하게 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이에 따른 행위가 자유로우며 동시에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 이래로 자유의 직접적 주체로 이해되어 온 것이 곧 의지였음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선택과 행위는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과 행위가 이성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의지의 선택이 지성의 숙고적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선택에 선행하는 지성의 인식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그 선택의 근거(ratio)를 밝힐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선택의 이성적 성격을 증명할 수 있다. 선택의 ‘근거’는 지성의 인식 내용에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위는 이성적 특질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성이 인식한 선택의 근거, 즉 선택 대상의 상대적 선성(善性)과 장점에 대한 인식 내용이, 과연 의지로 하여금 그 대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일 지성의 인식 내용이 선택의 충분한 근거라면, 다시 말해 대상의 선성에 대해 지성이 파악한 정보가 의지가 왜 그 대상을 선택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의지의 자유가 성립할 여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즉, 의지의 역할은 지성의 판단 내용을 외적 행위로 전환시키는 일종의 매개적 차원으로 극소화되고, 지성의 판단에 대해 독자적인 행위의 방향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은 인정되지 못할 것이

---

고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실제적 구별(real distinction)의 사고는 스킨라철학 후기로 가면서 점차 퇴색되며, 특히 스코투스는 영혼 자체와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능력들이 인간 행위의 원인이 라는 사고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엄격한 비판적 태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능력을 통해 행위를 분석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토론의 어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R. Cross, *Duns Scotus*, Oxford 1999, pp.83-84 참조).

다. 이 경우 우리는 아마도 지성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엄밀한 의미의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성의 인식 내용이 선택의 충분한 근거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이 경우에는 반대로 선택의 합리성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의지의 선택에 지성이 인식한 근거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독자적인 자발성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의 선행적(先行的) 인식 내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의지의 독자적 자발성이란, 결국 지성의 규제를 벗어난 자의적(arbitrary) 자발성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합리성과 자유 사이의 이러한 해석적 긴장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선택과 행위를 지성과 의지의 작용 관계에서 이해하는 스킨라철학적 능력심리학의 조건 위에서 나타난다. 지성이 의지의 선택을 결정한다고 이해하든, 혹은 의지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자기결정이라고 주장하든, 합리성과 자유를 각각 지성과 의지라는 영혼능력에 고정시키는 암묵적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는 한, 스킨라철학에서 이 긴장은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가 되는 것 같다. 물론 스킨라철학자들은 지성과 의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선택과 합리성과 자유를 동시에 정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이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사유의 시도를 후기 스킨라철학의 거봉인 둔스 스코투스(1266-1308)에게서 발견한다. 그는 합리성과 자유의 관계를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코투스는 합리성을 지성이 아니라 의지에 고유한 특징으로 파악한다. 의지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성적 능력(potentia rationalis)’이며, 자유란 곧 이성적 능력의 합리성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성과 합리성을 연결하고 의지와 자유를 연결하던 두 개의 개념적 축선(軸線)은 해체되고, 유일한 이성적 능력인 의지를 중심으로 합리성과 자유는 개념적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합리성과 자유의 긴장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시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은, 의지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이성적인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성적 능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성은 왜 이성적 능력으로 간주될 수 없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스코투스의 근본적인 사변은 무엇보다도 『형이상학주해』 9권의 마지막 문항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sup>2)</sup> 여기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적 유산에 대한 대단히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이론 전체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의 구분이다.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방금 언급한 『형이상학주해』 9권의 해당 텍스트를 중심으로, 스코투스가 제시하는 이 구분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그의 의지이론을 구성하는 기초적 개념들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의 내용만으로 스코투스 의지이론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코투스 의지이론의 폭과 깊이를 염두에 둘 때, 그것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각도의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sup>3)</sup> 스코투스 의지이

2) 스코투스의 이름으로 전해 내려온 형이상학 주해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의해 이 중 두 가지는 각각 동료 프란치스칸 회원이었던 곤살부스(Gonsalvus Hispanus, 1255-1313)와 안토니우스(Antonius Andreas, ca.1280-1333)의 것임이 밝혀졌다. 안토니우스의 위작은 Wadding판본에 실려 있다. T. Williams, "Introduction. The Life and Works of John Duns the Sco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Duns Scotus*, Cambridge 2003, p.9 참조. 스코투스 자신의 주해는 1997년 뉴욕 프란치스칸 연구소에서 비평본으로 출간되었다. R. Andrews, G. Etzkorn(ed.), *Quaestiones super libros Metaphysicorum Aristotelis I-V and VI-IX* (Joannis Duns Scoti Opera Philosophica, III-IV).

한편, 스코투스 저작의 전반적인 편찬 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한 T. Williams의 논문 외에도 김현태, 『둔스 스코투스의 삶과 사상』, 철학과현실사 2006, p.35-45. 그리고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http://kenarcher.org/scotus/>를 참조하라.

론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기획 연구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형이상학적 각도에서 그의 의지이론의 개념적 밑그림을 그려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대해 고찰한 후, 스코투스가 어떻게 그 구분을 자연과 의지의 구분으로 해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자연에서 의지를 구별시키는 본질적 특징인 비결정성의 의미를 해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스코투스가 왜 지성을 이성적 능력에서 제외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의 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9권 2장에서 능동적 능력에 대해 유명한 하나의 구분을 도입하고 있다. 능동적 능력은 로고스를 갖춘 능력(dynamis meta logou) 즉 이성적 능력과 로고스를 갖추지 않은 능력 즉 비이성적 능력(alogos dynamis)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성적 능력은 대립자에 관계하는 능력이지만, 비이성적 능력은 언제나 하나의 대상에 관계하는 능력을 말한다.<sup>4)</sup> 여기서

- 
- 3) 필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접근은 형이상학적, 윤리학적, 심리학적 접근이다. 이 각각은 의지라는 주제에 대한 스코투스 자신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코투스 의지이론의 기초 자료로 간주되는 세 문헌적 토대(textual base)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는 『형이상학주해』 IX권, 15문 외에도, 『정리집(Ordinatio)』 II권, 6구분, 『강독집(Lectura)』 II권, 25구분이 속한다. 필자는 이 글의 맺음말에서, 형이상학적 개념을 통한 의지의 규명이 왜 윤리적 접근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후속 연구(윤리학적 접근)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 이후에 수행될 연구 과제인 심리학적 접근은 지성이 의지에 행사하는 원인성이 어떤 것인지,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운동하는 것인지를 다루는 것으로서, 형이상학적 접근이 특수화된 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연적 작용의 원리인 형상과 제작적 압(poietikai epistemai) 혹은 기술(technai)의 구분이다. 예컨대 자연적 형상인 열은 언제나 가열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지만, 의술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sup>5)</sup> 스코투스가 『형이상학주해』 9권 15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구분이다. 스코투스는 이 구분의 참된 의미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석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 구분에 대한 예비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여기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quomodo sit intelligenda),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구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quae sit eius causa)를 묻고 있다.<sup>6)</sup>

첫 번째 물음을 통해 그가 강조하려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능력 자체의 본성에 따른 구분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능력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들은 이 구분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이 사실을 간과했을 때, 우리는 모든 능동적 능력이 대립자에 관계되는 능력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구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태양은 자연적 형상을 갖지만, 태양 역시 대립자들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태양은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이지만 동시에 진흙을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열은 일반적으로 가열의 원리이지만, 에어컨의 냉매와 같은 특수한 질료에서는 냉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 형상에 상이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 형상의 작용이 향하는 대상들의 상이한 성질들 때문이다. 따라서 능동적 능력을 대립자에 관계된 능력이나 하나의 대상에 관계

4) *Metaphysica* IX c.2, 1046b5-7.

5) *op. cit.*, 1046b7-9; 1046b16-24.

6) *Quaestiones super libros Metaphysicorum* IX, q.15, n.9(이하 *Qu. Meta.*로 줄임. 이 저작의 인용에서 표시되는 문단 번호는 뉴욕 프란치스칸 연구소의 편찬자들이 붙인 것임.)

된 능력으로 구분할 때, 우리는 각각의 능력들이 작용하는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능력의 본성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스코투스가 볼 때, 이 본성의 구분은 일종의 절대적인 구분이다. 즉, 모든 능동적 능력은—어떤 예외도 없이—이 구분에 의해 둘 중의 한 종류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며, 또한 한 종류에 속하는 능동적 능력은 그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종류의 능동적 능력처럼 작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다.<sup>7)</sup> 따라서 스코투스가 다음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능력 개념을 진술할 때, 스코투스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어떤 능동적 능력이 본성에 있어 하나로 남아 있으면서, 두 대립자를 동등하게 포함하는 일차적 결과를 지닌다면, 그 능력은 대립적—상반적이든 모순적이든—결과물의 능력이라고 불린다.”<sup>8)</sup>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능동적 능력을 ‘대립자에 관계하는 능력(*potentia ad opposita*)’과 ‘하나의 대상에 관계하는 능력(*potentia ad unum*)’으로 구분할 수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구분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며 스코투스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자연적 형상과 구별되는 지성적 형상의 특수한 본성이다. 자연적 형상은 자연적 사물 안에 있는 형상으로서, 그 사물을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근원일 뿐 아니라 그 사물이 작용 방식을 규정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하나의

7) *Qu. Meta.*, q.15, n.10, “De primo sciendum quod potentia activa (cuiuscumque est sive actionis sive termini producti) sic est illius quod, manente natura eadem, non potest ipsa esse activa alterius quam cuius ex se potest. Frigiditas enim, manens frigiditas, non potest esse caloris activa nec elicitiva calefactionis, si non est de activa. Quia, quidquid circa ipsam fieret, licet aliud posset aliquid facere ad esse caloris, nunquam frigiditas faceret ad hoc.”

8) *op. cit.*, n.11, “Illa ergo potentia activa dicitur esse oppositorum –sive contrariorum sive contradictoriorum–productorum quae, manens natura una, habet terminum primum sub quo potest utrumque oppositum aequae cadere.”

자연적 사물 안에 상반적인 형상들이 공존하지 못하는 한에서, 자연적 사물은 상반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sup>9)</sup> 그런데 자연적 형상이 지성에 의해 수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 안에 수용된 형상, 즉 사물의 관념 혹은 본질적 정의를 이성(logos)이라고 불렀던 바, 이성은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에 대한 앎의 원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물의 결여에 대한 앎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한 이성적 앎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물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그 사물이 무엇이 아닌지도 알고 있다. 그는 그 사물이 언제 존재하는지를 알 뿐 아니라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도 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의술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법에 대한 앎이기도 하지만 병이 들게 하는 법에 대한 앎이기도 하다. 의술이 지닌 이러한 상반적 작용의 가능성은, 예컨대 음식이나 독에 내재하는 자연적 형상이 한 가지 자연적 효과만을 낼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sup>10)</sup>

구분의 이유에 대한 스코투스의 설명은 결국, 사물 안에 있는 자연적 형상과 지성 안에 있는 형상이 본성적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본래적 가르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했던 구분은 결국 자연과 기술의 구분이었다. 그는 자연을 오직 한 가지 고정된 방식으로 작용하는 형상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 달리

9) *op. cit.*, n.13, “quia forma naturalis solummodo est principium assimilandi uni opposito similitudine naturali, sicut ipsa est ipsa et non opposita.”

10) *Op. cit.*, n.14. “Forma autem intellectus, puta scientia, est principium assimilandi oppositis similitudine intentionali, sicut et ipsa est virtualiter similitudo oppositorum cognitorum. Quia eadem est scientia contrariorum sicut et privative oppositorum, cum alterum contrariorum includat privationem alterius; agens autem illius est activum, quod potest sibi assimilare secundum formam qua agit; ideo videtur Aristoteles ponere dictam differentiam.”; *Metaphysica* IX, c.2, 1046b5-13; A. Wolter,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hn Duns Scotus*, Ithaca 1990, pp.171-172 참조.

인간의 기술은 상반된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적 혼 안의 형상을 원리로 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했다. 스코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구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구분 의도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에서 누구나 읽어낼 수 있는 바, 스코투스의 예비적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에 나타난 이 액면 그대로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코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이라는 구분의 ‘참된 의미’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석의 길로 나아간다. 이 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엄밀히 말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구분(differentia assignata)’이 아니라 ‘구분 그 자체(differentia in se)’이다.<sup>11)</sup>

### Ⅲ. 의지와 자연의 구분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의 구분에 대한 스코투스의 해석은, 이 구분의 참된 의미가 결국 의지와 자연의 구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비이성적 능력이란 자연을 말하며 이성적 능력이란 의지를 말한다.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의 구분을 단순히 지성 안에 수용된 형상과 자연적 형상의 구분, 혹은 기술과 자연의 구분으로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만을 놓고 보면, 스코투스의 이러한 해석은 다소간 충격적이다. 그러나 스코투스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 역시 근본적으로는 의지와 자연의 구분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코투스의 이러한 해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가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을 구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가 두 능력을 구분하며 문제 삼는 것은, 능력이 작용하

---

11) *Qu. Meta.*, IX, q.15, n.20.

여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능력이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어떤 능력이 작용하여 생겨난 결과란 곧 그 능력의 대상을 말하는 바, 스코투스는 능력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까닭은 그 능력이 특정한 유형의 대상에 상응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능력이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이 작용의 결과 즉 대상의 유형에 선행한다. 말하자면, 능력이 작용하여 생겨난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단수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대안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과의 유형은 애초에 능력이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능력의 본성을 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은 바로 능력의 작용 방식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12)</sup>

스코투스에 따르면, 이렇게 능동적 능력의 구분 기준을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modus eliciendi operationem)’에 두었을 때, 능동적 능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이 곧 자연과 의지이다.

그런데 [능력이 자신에게] 고유한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밖에 있을 수 없다. 어떤 능력은 그 자체가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그 능력 자체만을 놓고 보면, 외부의 방해받지 않는 이상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어떤 능력은 그 자체가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작용 혹은 그 반대의 작용을 실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작용할 수도 혹은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능력은 일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며, 두 번째 능력은 ‘의지’라고 불린다.<sup>13)</sup>

12) *Op. cit.*, n.21. “De primo sciendum est quod prima distinctio potentiae activae est secundum diversum modum eliciendi operationem: quod enim circa hoc vel illud agat (etsi aliquo modo distinguat), aut distinctionem ostendat, non tamen ita immediate. Non enim potentia ad obiectum, circa quod operatur, comparatur nisi mediante operatione quam elicit, et hoc sic vel sic.”; H. Möhle, *Ethik als scientia practica nach Johannes Duns Scotus*, Münster 1995, p.162 참조. 스코투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능력을 구분하는 근거가 능력의 대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토마스적인 관점(예컨대 *Summa Theologiae* I, q.78, a.1 참조)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의 고찰에 따르면, 자연에 속하는 모든 능력들은 각자의 본성에 의해 결정된 한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며, 적절한 외적 조건이 갖춰지면 그 방식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 ‘하나의 대상에 관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연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작용의 능력을 우리는 인간의 지성적 영혼 안에서 발견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능력인 의지는 결코 특정한 한 가지 작용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어떠한 대상적 조건도 결코 의지의 작용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큰 선성(善性)을 지닌 욕구의 대상이 의지에게 주어질지라도, 의지에게는 그것을 싫어하고(nolle) 그 반대의 것을 원할(velle)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지의 비결정성은 이런 작용을 할 것인가 저런 작용을 할 것인가의 차원—즉 종별화(specificatio)의 차원—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작용을 할 것인가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인가의 차원—즉 실행(exercitus)의 차원—에서 실현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의지에게 주어질지라도, 그리고 그에 대한 원욕을 대체할만한 다른 어떤 대안적 원욕의 가능성이 막혀있을지라도, 의지는 그 좋은 것을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non velle) 수도 있다.<sup>14)</sup> 스코투스의 해석에 따르면, ‘대립자에 관계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지의 근본적 비결정성, 즉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비결정적 방식에 맞추

13) *Op. cit.*, n.22. “Iste autem modus eliciendi operationem propriam non potest esse in genere nisi duplex. Autem enim potentia ex se est determinata ad agendum, ita quod, quantum est ex se, non potest non agere quando non impeditur ab extrinseco. Aut non est ex se determinata, sed potest agere hunc actum vel oppositum actum; agere etiam vel non agere. Prima potentia communiter dicitur ‘natura’, secunda dicitur ‘voluntas’.”

14) 어떤 대상을 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을(non velle) 수 있다는 것은 곧 자기억제(self-restraint) 혹은 자기제어(self-control)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성적 능력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간주된다. M. Ingham/M. Dreyer, *The Philosophical Vision of John Duns Scotus*, Washington D.C. 2004, p.152 참조.

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 아닌 의지를 본래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성적 능력이라고 불러야 한다.

작용의 촉발 방식을 능력의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이성적 능력과 비이성적 능력의 구분을 의지와 자연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스코투스의 해석은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먼저, 의지를 자연과 구별시키는 비결정성 그 자체의 의미가 더 밝혀져야 한다. 의지의 작용이 본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의지가 어떤 특정한 작용을 실현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의지가 그 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결정성의 상태에서 현실적 작용이 일어나는 이 결정의 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두 번째, 지성을 이성에 포함시키는 통상적인 관점에 비추어 스코투스의 해석이 어떤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밝혀야 한다. 왜 유독 의지가, 더 정확히 말해 의지만이 이성적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것은 스코투스 의지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물음들이며,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물음들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구분이 더 이상 근거를 물을 수 없는 궁극적이고 기초적인 구분이라는 스코투스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능동적 능력을 의지와 자연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위의 원인으로 소급하여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구분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지는 왜 비결정적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자연적 능력의 작용은 왜 한 가지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지, 능동적 능력은 어째서 이 두 가지 능력으로 구분되는지를 묻는 것은 애초에 무의미하다. 열이 자신의 정해진 작용 방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듯이, 의지에 특유한 비결정적 작용 방식에 대해 우리는 의지 자신 이외의 어떤 매개적 원인을 찾을 수 없다.<sup>15)</sup> 스

---

15) *Op. cit.*, n.24. “Si ergo huius differentiae quaeritur causa, quare scilicet natura est tantum unius (hoc est-cuiuscumque vel quorumcumque sit-determinate ex se est illius vel illorum), voluntas autem est oppositorum (id est, ex se indeterminate huius actionis vel oppositae, seu actionis vel non actionis), dici

코투스스는 구분의 증거를 오히려 우리의 직접적이고 자명한 경험에서 찾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으며 아예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식 안에서 그때마다 경험한다.<sup>16)</sup>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대상적, 외적 요인들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그리하여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것을 불가피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의지의 기초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내적 경험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스키투스는 이러한 경험적 사실의 인식적 가치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명한 경험의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의지의 자유와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논박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마따나, “이렇게 명백한 것들을 부인하는 자는 감각을

---

potest quod huius nulla est causa. Sicut enim effectus immediatus ad causam immediatam comparatur per se et primo et sine causa media—alioquin iretur in infinitum—, ita causa activa ad suam actionem, in quantum ipsam elicit, videtur immediatissime se habere. Nec est dare aliquam causam quare sic elicit nisi quia est talis causa. Sed hoc est illud cuius causa quaerebatur.” 의지의 우연적 작용 방식의 환원불가능성은 강독집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Lectura* I, d.8, n.279. “Si autem quaeras quid determinat ipsum (scilicet agens primum) ad agendum, dico quod per voluntatem suam determinatur; et si quaeras quid determinat voluntatem, respondeo secundum agistram suam IV *Metaphysicae* quod ‘indisciplinati hominis est quaerere causam cuius non est causa’; nunc, haec est immediata ‘voluntas divina determinat se ad agendum’,—est enim dare immediatum in contingentibus sicut in necessariis, ut ‘ignis calefacit’; unde quaerere quid determinat voluntatem, est quaerere quare voluntas est voluntas.” H. Möhle, *op. cit.*, pp.164–165 참조.

- 16) *Qu. Meta.*, IX, q.15, n.30. “Experitur enim qui vult se posse non velle, sive nolle.” 그 밖에도 *Lectura* I, d.39, qq.1–5, n.54; *Ordinatio* IV, d.49, q.10, n.10(ed. Vivès XXI, p.333) 참조.

필요로 하거나 징벌을 필요로 할 따름”<sup>17)</sup>이기 때문이다.

#### IV. 의지의 비결정성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스코투스는 의지가 비결정적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모든 능동적 능력들과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자명한 심리적 경험 안에 직접적으로 주어지 이러한 의지의 비결정성이 ‘이성적 능력’의 본래적 의미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스코투스 의지 이론의 핵심인 의지의 비결정성 개념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만일 의지가 애초에 비결정성을 본질로 하는 능력이라면, 의지는 어떻게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운동하는가?<sup>18)</sup> 다시 말해, 의지가 a를 원할 수도 b를 원할 수도 있는 능력이고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라면, 이러한 단순한 비결정의 상태에서 의지가 a를 현실적으로 원하는 일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스코투스는 의지에 속하는 비결정성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비결정성이라는 관념은 아직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한 능력(잠재성)의 불충분한 상태, 즉 현실성의 결여와 부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족성(不足性, *insufficiencia*)으로서의 비결정성은 형상을 얻지 못한 질료 즉 수동적 능력을 특징짓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형상의 현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형상의 현

17) *Topica* I, c.11, 105a5-7. A. Wolter, *Op. cit.*, pp.174f. 참조. 필자는 의식의 자명한 경험의 의지의 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원형은 예컨대 *De libero arbitrio* I, XIII, 26; 29; III, I, 3 등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18) *Qu. Meta.*, IX, q.15, n.1. “[...] quomodo reducetur talis causa ad actum si indeterminata est ex se ad agendum et non agendum.”

실성이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질료는 비결정성을 지닌다. 그런데 비결정성에는 현실성의 결여에 기초한 질료의 비결정성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또 다른 종류의 비결정성, 즉 현실성의 무제한성 혹은 과잉에 기초한 비결정성도 존재한다.<sup>19)</sup> 스코투스가 ‘과잉충족의 비결정성 (indeterminatio superabundantis sufficientiae)’이라 부르는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비결정성은 예컨대 피조물에 대한 신의 능력에서 발견된다. 신은 자신의 무제한적 현실성에 기초하여 피조물을 창조하며, 따라서 신의 창조 행위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한 자유롭고 우연적인 행위인 것이다.<sup>20)</sup> 자신의 무제한적 현실성 덕분에 신은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하도록 구속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신적 능력의 비결정성은 부족성이 아닌 완전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스코투스는 신이 단적으로 소유하는 이 무제한적 현실성과 완전성이 ‘특정 방식으로(quoddammodo)’ 의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지의 비결정성은 질료적이고 수동적인 비결정성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완전성과 능동적 힘에 기초한 비결정성이다.<sup>21)</sup>

의지의 비결정성이 과잉충족의 비결정성이기 때문에, 의지는 현실성의 상태로 이행할 때 어떤 외부의 결정 요인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 어떤 능력이 과잉충족의 의미에서 비결정적이라는 말은, 그 능력으로 하여금 특정한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외적 요인

19) *Op. cit.*, n.31. “Responsio: est quaedam indeterminatio insufficientiae, sive ex potentialitate et defectu actualitatis, sicut materia non habens formam est indeterminata ad agendum actionem formae; est alia superabundantis sufficientiae, quae est ex illimitatione actualitatis, vel simpliciter vel quoddammodo.”

20) 이런 의미에서 세계의 우연성의 궁극적인 근거는 신의 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Ordinatio* I, d.2, nn.79-88을 참조하라.

21) *Qu. Meta.*, IX, q.15, n.34. “Indeterminatio autem quae ponitur in voluntate non est materialis, nec imperfectionis in quantum ipsa est activa, sed est excellentis perfectionis et potestativae, non alligatae ad determinatum actum.”

이 갖추어졌어도 그 능력은 여전히 그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지가 비결정의 상태에서 특정한 현실성으로 이행하는 것, 즉 a를 원할 수도 b를 원할 수도 있는—그리고 아무 것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상태에서 a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러한 작용에 영향을 준 모든 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지 자신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질료가 비결정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외적 요인에 의해 특정 형상을 수용하도록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의지의 비결정성은 자기 스스로 현실성의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힘, 즉 자기결정의 힘을 의미한다.<sup>22)</sup> 자기결정의 힘인 비결정성은—적어도 피조물의 영역에서는—오로지 의지만이 지니는 것으로, 의지를 모든 자연과 구별되게 하는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잉충족의 비결정성 개념에 유의할 때, 우리는 의지가 대립자에 관계하는 능력이며 비결정적 능력이라는 스코투스의 주장을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코투스가 의지를 비결정적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는 단순히 의지가 복수적인 작용의 대안들 사이에서 처하게 되는 미결정의 상태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의지의 비결정성은 의지가 대안들 중의 하나를 택하여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 작용으로 (자기)결정되더라도, 극복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요컨대, 의지의 비결

---

22) *Op. cit.*, n.32. “Primo modo indeterminatum non reducitur ad actum nisi prius determinetur ad formam ab alio; secundo modo indeterminatum potest se determinare.” F. Inciarte는 이성(ratio)의 본래적 의미가 결국 자기 자신을 근거지움(Selbstbegründung), 즉 자기결정의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성 혹은 근거(ratio, Grund)는 자연, 즉 언제나 타자에서 인과성을 받아들이고 타자에 대해 인과성을 발휘할 뿐인 원인(causa, Ursache)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F. Inciarte, “Natura ad unum—ratio ad opposita. Zur Transformation des Aristotelismus bei Duns Scotus”, in: *Philosophie im Mittelalter*, ed. J. Beckmann, Hamburg 1987, pp.262-265.

정성은 의지가 운동하기 전의 어떤 잠정적인 단계 혹은 상태가 아니라 의지 자체의 본질을 뜻하기 때문이다. 의지가 복수적 대안 사이의 미결정의 상태를 극복하고 그 중의 어떤 대상을 현실적으로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의지는 그 현실적 원욕 작용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지 운동을 둘러싼 모든 외적인 요건이 불변할 지라도, 의지는 언제라도 다른 대상을 원함으로써 현재 원하는 대상을 싫어할 수도 있고, 혹은—더 나은 대상을 원하지 않고서도—현재 원하는 그 대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3)</sup>

## V. 지성은 왜 이성적 능력이 아닌가?

이성적 능력의 비결정성에 대한 스코투스의 관점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속한다고 이해되어왔던 지성이 실상은 이성적 능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스코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적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다름 아닌 지성을 가리키려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스코투스는 자기 자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코투스는 먼저 지성과 의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교 기준을 구분한다. 지성과 의지는 각자가 유발하는 고유한 활동에서(*ad actus proprios quos eliciunt*) 비교될 수

23) 의지의 작용이 우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이렇게 의지가 어떤 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의지의 비결정성 즉 대립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Qu. Meta.*, IX, q.15, n.59. “Si non posset in opposita quando est actu determinata, hoc est in illo instanti et pro illo, nullus effectus actu ens esset actu contingens. [...] effectus non dicitur contingens in potentia nisi ratione suae causae potentis in oppositum; ergo nec in actu effectus contingens nisi causa actu causans posset in oppositum pro illo nunc pro quo causat ipsum.”

도 있으며, 또한 각자가 원인성을 행사하는 종속적 능력의 활동에서(*ad actus aliarum potentiarum interiorum in quibus quamdam causalitatem habent*) 비교될 수도 있다.<sup>24)</sup> 더 본질적인 비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능력 고유의 활동을 놓고 보면, 지성은 엄연히 결정되어 있는 능력이며 따라서 비이성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성의 결정성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지성은 어떤 인식 대상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지성은 가시적인 대상을 대면하면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눈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지성은 어떤 사태를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동의와 거부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성은 개념들이 복합되어 있는 명제에 대해 동의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거부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성 자신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제 자체의 진리치에 의한 것이다. 지성은 명백하게 참인 명제를 거부하지 못하며, 명백하게 거짓인 명제에 동의하지 못한다.<sup>25)</sup> 물론 어떤 사람의 지성이 다른 사람의 지성보다 특정한 사태와 그 사태를 표현하는 명제를 더 잘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지성이 인식의 과정 자체를 중단하도록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주어진 대상에 상응하는 인식의 내용 대신 다른 인식의 내용을 만들어내도록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성은 실행의 자유와 종별화의 자유 중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sup>26)</sup>

이처럼 지성은 자신이 유발하는 고유한 활동(인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바로 이 점에서 지성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의지와 달리 엄연한 비이성적 능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4) *Op. cit.*, n.36.

25) *Ibid.*, “Est enim [intellectus] ex se determinatus ad intelligendum, et non habet in potestate sua intelligere et non intelligere sive circa complexa, ubi potest habere contrarios actus, non habet etiam illos in potestate sua: assentire et dissentire.”

26) H. Möhle, *Op. cit.*, p.169f.; M. Ingham/M. Dreyer, *Op. cit.*, p.153f. 참조.

그러나 두 번째 비교 기준에서 보면, 지성 역시 어떤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것은 지성이 이성적 활동 즉 의지의 활동을 위한 특정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립자에 관계된 능력 즉 의지가 대립자에 대해 비결정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일단 그 대립자를 인식해야 한다. 지성의 인식이 의지의 활동에 특정한 인과성을 행사하는 한에서, 즉 지성의 활동이 의지의 이성적 활동에 선행하는 한에서, 지성은 ‘특정 의미의’ 이성적 능력이라고 불릴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지성이 자신에게 외적인 활동인 의지의 활동에 행사하는 원인성은 결코 의지의 활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원인성이 아니다. 어떤 대상을 원하기로 의지가 결정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지성의 선행하는 인식은 비로소 의지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원인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스코투스는 ‘제시(ostendere)’와 ‘인도(dirigere)’를 의미하는 지성의 원인성은 결코 외적 능력의 활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지성은 독자적으로 외적 능력의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sup>28)</sup> 따라서 지성은 “고유한 활동의 관점에서 이성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도하는 외적 활동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이성적이지는 않다.(Et ita non solum non est rationalis respectu actus proprii, sed nec complete rationalis respectu actus extrinseci in quo dirigit.)”<sup>29)</sup>

어떤 능력의 성격을 판별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능력 자신의 고유한 활동이며, 그 능력이 원인성을 행사하는 외적 활동은 다만 부수적인 기준이 될 뿐이다.<sup>30)</sup> 스코투스에 따르면, 아리스토

27) *Qu. Meta.*, IX, q.15, n.38. “solummodo [intellectus] autem secundum quid rationalis, in quantum praeexigitur ad actum potentiae rationalis”; n.40 “Cedit autem sub alio membro[=sub ratione] in quantum praeuius, per actum suum, actibus voluntatis.”

28) *Op. cit.*, nn.36-38.

29) *Op. cit.*, n.38; H. Möhle, *Op. cit.*, p.171 참조.

30) *Op. cit.*, nn.36-37. “Prima comparatio est essentialior, patet. [...] Secunda comparatio videtur quasi accidentalis. Tum quia ad actus

텔레스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부수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지성을 평가했다.<sup>31)</sup> 이것이 지성이 이성적 능력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이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이다. 이렇게 고유의 활동이 아니라 상대적인 외적 활동에서 지성과 의지의 활동을 관찰할 때, 지성의 활동은 의지의 활동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감지된다.<sup>32)</sup>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하지만,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인식을 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지에 대한 지성의 영향은 지성에 대한 의지의 영향보다 더 빈번하다. 이처럼 지성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의지의 활동에 선행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을 지성 고유의 활동에서 평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성이 원인성을 행사하는 외적인 활동에서 지성을 평가하면서 지성이 행사하는 그 원인성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다만 대립자를 향한 작용이 있기 위해

---

aliarum potentiarum non comparantur istae potentiae nisi median-  
tibus actibus propriis, ut videtur, qui proprii priores sunt illis aliis.”  
이러한 관점은 의지에 의해 명령된 활동(actus imperatus a voluntate)  
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유발된 활동(actus elicited a voluntate) 즉  
의지 자신의 원욕(volitio)만이 일차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실천(praxis)  
에 해당한다는 『정리집』 서문의 견해와 통하는 것이다. *Ordinatio* Prol.  
n.234. “[...] sequitur quod actus imperatus a voluntate non est  
primo praxis sed quasi per accidens, quia nec primo est posterior  
intellectione nec primo natus elici conformiter rectae rationi.  
Oportet ergo aliquem alium actum esse primo praxis; ille non est  
nisi volitio, quia per illam habet actus imperatus dictas  
condiciones; ergo prima ratio salvatur in actu elicito voluntatis.”;  
H. Möhle, *Op. cit.*, p.167 참조.

31) *Qu. Meta.*, IX, q.15, n.36.

32) *Op. cit.*, n.53. “Potest dici quod actus intellectus praeuius est  
communiter actui voluntatis, et nobis notior. Aristoteles de  
manifestioribus saepius locutus est, unde de voluntate pauca dixisse  
iuvenitur, quamvis ex dictis eius aliqua sequantur in quibus  
consequenter dixisset si illa considerasset.”

서는 대립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태만을 문제 삼았다.<sup>33)</sup> 이것이 스코투스가 파악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성을 이성적 능력과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 이유이다.

## VI. 맺음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해석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하는 당시의 스콜라철학 내의 주지주의적 전통 전반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명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지주의적 전통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지의 자유를 의지의 활동에 선행하는 지성적 인식의 보편성과 합리성으로 소급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주의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지성은 단순히 욕구의 대상이 선하다(욕구할만하다)는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선한 까닭을 보편적 개념으로써 인식하며, 이렇게 인식한 선의 근거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대안적 대상들을 비교하고 결과적으로 최선의 욕구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sup>34)</sup> 이것이 바로 지성의 합리성인 바, 의지는 이러한 합리성에 기초한 욕구 즉 지성적 또는 이성적 욕구(*appetitus intellectivus seu rationalis*)라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주의적 비판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자유를 합리성으로 환원시키는 태도, 혹은 합리성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는 태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의지란 지성의 합리적 판

33) *Op. cit.*, n.38. “Et hoc modo videtur Aristoteles loqui et ponere talem ordinem, quod primo requiritur notitia aliqualis oppositorum.” 또한 nn.48-49도 참조할 것.

34) 이러한 사고방식은 예컨대 Thomas Aquinas, *De veritate*, q.24, a.2, c; *Summa theologiae* I-II, q.6, a.3, c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B. Bonansea, “Duns Scotus’ Voluntarism”, in: *John Duns Scotus 1265-1965* ed. J. Ryan & B. Bonansea, Washington D.C. 1965, pp.97f.을 참조할 것.

단에 구애되지 않는 자기결정의 능력이며, 바로 이것이 의지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결정의 능력은 지성에게는 속하지 않는 의지만의 고유성이기 때문에, 의지는 이 점에서 지성보다 더 우월한 능력이라는 것이다.<sup>35)</sup> 스코투스는 이러한 주의주의적 주장이 궁극적인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합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의지의 자기결정을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합리성의 개념 자체를 지성이 아닌 의지의 활동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의지의 활동은 인식의 합리성으로 환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본래적인 의미의 합리성이 발현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성적 능력으로서의 의지라는 스코투스의 개념은, 지성에 대한 의지의 독자적 우위성에 대한 주의주의적 강조의 정점을 이룬다. 이 개념의 이론적 의의는, 이 글의 초두에서 언급했던 자유와 합리성 사이의 해석적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개념으로 인해 의지와 자연의 불연속적 단절이 종교적으로 확립되고 더 나아가 자유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분리하는 후기 스콜라철학의 사유 방식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욕구 개념에 기초하여 의지를 보편적인 자연적 욕구(appetitus) 또는 경향(inclinatio)의 한 단계로 이해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sup>36)</sup> 즉, 토마스에게 인간의 의지는 이성적 실체의 단계에서 발현되는 욕구로서, 인간 자체의 경향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한, 의지와 자연을 대립시키는 부분적인 전거들에도 불구하고, 토마스의 의지는 결국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이

35) E. Stadter, "Die Seele als minor mundus und als regnum. Ein Beitrag zur Psychologie der mittleren Franziskanerschule", in: *Miscellanea mediaevalia* 5, Berlin 1968, p.57 참조.

36) 예컨대 *Summa contra gentiles* III, c.88. "Sicut in re inanimata se habet inclinatio naturalis ad proprium finem, quae et appetitus naturalis dicitur; ita se habet in substantia intellectuali voluntas, quae dicitur appetitus intellectualis. Inclinationes autem naturales dare non est nisi illius qui naturam instituit."

해될 수밖에 없다.<sup>37)</sup> 이에 비해 스코투스는 자연적 욕구가 결코 의지를 포괄하는 형이상학적 유(類)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모든 자연적 욕구는 자기완성 혹은 자기실현이라는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 필연적 경향이지만, 의지의 활동은 결코 이러한 경향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성적 욕구’라는 토마스적 의지 개념은 더 이상 의지를 의지로서 규정하는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없다.

스코투스는 『정리집』 2권 6구분 2문에서, 의지를 의지이게 하는 것, 즉 자연과 구분되는 의지의 본질을 ‘정의의 성향(affectio iustitiae)’이라는 말로 부른다.<sup>38)</sup> 그것은 자기완성을 향한 목적론적, 자연적 경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 그 자체를 그것이 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의지에게 자기완성을 향하는 이익의 성향(affectio commodi) 뿐 아니라 정의의 성향이 내재하며 정의의 성향이야말로 의지를 의지이게 하는 본질적 구성 요소라는 스코투스의 주장은, 『형이상학주해』에서 그가 수행한 의지와 자연의 구분이 형이상학적 의미 뿐 아니라 도덕적 의미 또한 지닌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해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형이상학주해』의 탐구는, 우연적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유로운 원인을 입증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의지의 작용 방식을 자연적 능력의 작용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의지의 본질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의지의 작용이 능력의 결과(effectus)라는 점에서, 『형이상학주해』의 탐구는 일종의 후험적(a posteriori) 탐구였다고 할 수 있다.<sup>39)</sup> 이에 비해 『정리집』 2권에서 우리는, 소위 이익 성향과 정의 성향으로 불리는 의지의 내적 구성에 대한 스코투스의 선험적(a priori) 탐구를 발견하게 된다. 후험적 탐구의 핵심적 성과였던 비결정

37) T. Hoffmann, “The Distinction between Nature and Will in Duns Scotus”, in: *Archives d'histoire doctrinale et littéraire du Moyen Age* 66 (1999), p.190.

38) *Ordinatio* II, d.6, q.2, in *Will and Morality*, ed. A. Wolter, Washington D.C. 1986, p.469. 이 개념은 스코투스가 안셀무스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Anselmus, *De casu diaboli*, c.14-26 참조.

39) *Qu. Meta.*, IX, q.15, n.30; M. Ingham/M. Dreyer, *Op. cit.*, p.151.

성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자유 개념을 이중 성향 이론이 열어주는 도덕적 의미 지평 속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코투스 의지 이론의 전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형이상학적 자유의 가장 뚜렷한 표지인 이성적 의지의 자기 제어는 결국 정의 성향의 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자연적 경향의 선 혹은 목적이 아니라 선 그 자체(bonum in se)를 일종의 규범으로서 준수하려는 이성적 피조물의 내적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면 관계 상,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후속 논문으로 제출될 것이다.

김 율 /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투고일: 2008. 02. 20.

심사완료일: 2008. 05. 06.

## 참고문헌

### 스코투스의 원전 및 번역본

*Quaestiones super libros Metaphysicorum Aristotelis*, ed. R. Andrew (B. Ioannis Duns Scoti Opera philosophica vol.3-4), New York 1997.

*Ordinatio*, ed. Commisio Scotistica, Rome 1950f.

*Lectura in librum secundum sententiarum*. ed. Commisio Scotistica, Rome 1960f.

*Duns Scotus on the Will and Morality*. ed. & trans. by A. Wolter, Washington D.C. 1986.

*Questions on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vol.1-2, trans. G. Etzkorn & A. Wolter. New York 1997f.

*Prologue de l'Ordinatio*, trans. G. Sondag, Paris 1999.

[*Ordinatio*와 *Lectura*는 구할 수 있는 Vatican 판본(*Doctoris subtilis et mariani Ioannis Duns Scoti Ordinis Fratrum Minorum Opera Omnia* vol. II; VI; XVII)을 일차적으로 참조하고, 구할 수 없는 경우 Vivès 판본(vol. XXI)과 Wolter의 선집, 그리고 Sondag의 번역본을 참조했음.]

### 그 밖의 원전

Aristoteles: *Metaphysics*, trans. & ed. W. D. Ross, Oxford 1928. (『형이상학』, 김진성 옮김, 이제이북스 2007.)

\_\_\_\_\_ : *Topics. Books I and VIII*, trans. by R. Smith, Oxford 1997.

Anselmus: *De casu diaboli in: Wahrheit und Freiheit* trans. by H. Verweyen, Einsiedeln 1982.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ed. W. M. Green, Turnhout 1970. (『

자유 의지론』, 성염 옮김, 분도 1998.)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_\_\_\_\_ : *Summa contra gentiles*.

\_\_\_\_\_ : *De veritate*.

[토마스의 저작은 R. Busa 판본(*S. Thomae Aquinatis Opera*, Stuttgart-Bad Cannstadt, 1980)을 참조했음.]

### 이차문헌

김현태, 『둔스 스코투스의 삶과 사상』, 철학과현실사, 2006.

Adams, M.: “Duns Scotus on the Will as Rational Power”, in: *Via Scoti. Methodologica ad mentem Joannis Duns Scoti*, ed. by L. Sileo, Roma 1995, pp.839-854.

Bonansea, B.: “Duns Scotus' Voluntarism”, in: *John Duns Scotus 1265-1965* ed. J. Ryan & B. Bonansea, Washington D.C. 1965, pp.83-121.

Cross, R.: *Duns Scotus*, Oxford 1999.

Hoffmann, T.: “The Distinction between Nature and Will in Duns Scotus”, in: *Archives d'histoire doctrinale et littéraire du Moyen Age* 66 (1999), pp.189-224.

Inciarte, F.: “Natura ad unum-ratio ad opposita. Zur Transformation des Aristotelismus bei Duns Scotus”, in: *Philosophie im Mittelalter*, ed. J. Beckmann, Hamburg 1987, pp.259-273.

Ingham, M. & Dreyer, M.: *The Philosophical Vision of John Duns Scotus*, Washington D.C. 2004.

Möhle, H.: *Ethik als scientia practica nach Johannes Duns Scotus*, Münster 1995.

Stadter, E.: “Die Seele als minor mundus und als regnum. Ein Beitrag zur Psychologie der mittleren Franziskanerschule”, in: *Miscellanea mediaevalia* 5, Berlin 1968, pp.56-72.

- Williams, T.: “Introduction. The Life and Works of John Duns the Sco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Duns Scotus*, ed. by T. Williams, Cambridge 2003, pp.1-14.
- Wolter, A.: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hn Duns Scotus*, ed. by M. M. Adams, Ithaca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Theory of the Will of Duns Scotus (I)  
 –Will as Rational Potency–

Kim, Yul

The theory on the will of John Duns Scotus is based principally on Aristotle's distinction of active potencies as rational and irrational potency in the ninth book of *Metaphysics*. Through a *aposteriori* discussion in his *Questions on Metaphysics*, Scotus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is distinction means in fact the distinction between will and nature. He considers the rationality of the will to consist most of all in the fact that every moment the will wills an object, it possesses also the ability to abandon the act of willing, i.e. the ability of self-control. According to Scotus, this phenomenon of contingency is reduced to the "indetermination of superabundant sufficiency" in the will itself. Scotus' theory of the will, according to which not the intellect but the will is rational in a proper sense, opens a perspective to radically resolve the dilemma between rationality and freedom of the human act. Furthermore, it throws a light on so called double affection theory which is fundament of the moral theory of Duns Scotus.

**Subject Class:** Medieval Philosophy, Metaphysics

**Keywords:** rational potency, will, indeterminacy, nature, intellect